



# 김국영 육상 100m 9초대 목표·이은경 양궁 2관왕 도전



100m·200m·400m계주에 출전하는 광주시청 김국영



여자 100m허들에서 메달 시상에 나서는 광주시청 정혜림



여자양궁 2관왕에 도전하는 순천시청 이은경



여자복싱 57kg급 금메달 후보 화순출신 임애지

## 광주·전남 선수 임원 79명 참가

오는 18일 인도네시아에서 개막하는 아시아 최대의 스포츠 축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는 광주·전남 출신 및 지역소속 선수와 임원 79명이 참가해 아시아 강호들과의 메달 경쟁을 벌인다. 광주는 육상과 유도, 수영, 배드민턴 등 17개 종목에 29명의 선수와 2명의 임원이 참가한다. 육상에서는 광주시청 육상팀 소속 선수 5명이 나선다. 남자 육상 단거리의 간판 김국영을 비롯해 멀리뛰기의 김덕현(33), 400m계주의 김민균(29), 여자 100m허들 정혜림(31), 여자 세단뛰기의 배찬미(27)가 출전해 메달경쟁을 벌인다. 소속팀에서 5명의 국가대표를 배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예상 성적대로라면 광주가 명실상부 육상의 성지로서의 명성을 드높일 수 있다. 이들은 25일 자카르타 겔라나 봉 카르노 메인스

광주, 시청육상팀 5명 메달 레이스... 유도 김성연·펜싱 강영미 금메달 사냥 전남, 장대높이뛰기 진민섭·복싱 임애지·볼링 최복음·펜싱 박경두에 기대

타디움에서 진행되는 예선전을 시작으로 메달 레이스에 참여한다. 남자 100m에 10초 07의 한국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김국영은 4년 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의 결선 실패를 이번 대회를 통해서 씻겠다는 각오다. 김국영은 한국 육상 100m 최초로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과 2017년 런던 세계육상선수권에서 출전했고, 같은 해 세계선수권에서는 한국 남자 100m 최초로 준결승에 진출하는 등 세계적인 대회에 출전해 기량과 경험을 충분히 쌓아왔다. 이번 대회에 100m와 200m, 400m계주에 출전하는 김국영은 오후 7시(이하 한국시간)에 있을 100m 예선전을 시작으로 마의 9초대 진입과 금메달을 향한 질주를 펼친다.

여자 100m허들 아시아랭킹 2위 정혜림은 지난 6월 일본 그랑프리 여자100m허들 결승에서 13초 11로 우승하며 아시안 게임을 위한 담금질을 마친 상태다. 정혜림은 25일 오후 11시 40분 예선전을 시작으로 금메달에 도전한다. 유도에서는 -70kg급 김성연(27·광주도시철도공사)이 출전한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금메달과 은메달, 2017중국 그랑프리 은메달, 2017타이베이하계유니버시아드 동메달을 따냈던 김성연은 이번 대회에서는 금메달을 목표로 한다. 김성연은 숙적인 세계 랭킹 26위의 니조에 사키(일본)와 신흥강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중국 등의

벽을 넘어서면 대한민국 유도대표팀에서 유일하게 대회 2연패를 달성하게 된다. 배드민턴에서는 무서운 신에 안세영(광주체고 1년)의 활약도 예고된다. 2018 전국배드민턴종별대회 단식에서 우승하며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안세영은 19일 단체전에 참가한 후, 24일에는 개인전에서 메달경쟁을 벌인다. 펜싱에서는 강영미(33·서구청)가 에페에서 메달 사냥에 나선다. 강영미는 올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국제월드컵펜싱선수권에서 동메달을 거머쥔 여세를 몰아 아시아 최강자에 도전한다. 이밖에 2004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이보나(37·광주일반)도 최근 봉황기 사격 대회에서 한국신 기록을 수립하는 등 쾌조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 골프에서는 2018에비앙아시아챌린지 우승자인 유해란(송일고2년)도 메달획득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남에서는 양궁과 유도, 복싱, 볼링, 카누 등 17개 종목에 44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한다. 세계최강인 한국 여자양궁에서 힘겨운 대표선발

전을 거쳐 태극마크를 단 이은경(20·순천시청)은 개인전과 단체전 2관왕에 도전한다. 남자 장대높이뛰기 한국신기록(5m75cm)을 보유하고 있는 진민섭(26·여수시청)도 금메달을 향한 여정을 시작한다. 화순출신으로 지난해 세계유스복싱선수권에서 한국 여자 선수 최초로 우승한 임애지(57kg급·한국체대 1년)와 여자 유도 국내 최강자로 인천아시안게임 우수 검출상을 동메달, 2017 타이페이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은메달리스트인 서희주(26·순천우수협회)도 장권전능에 도전한다. 볼링 개인·단체 최복음(31·광양시청)과 김현미(30·곡성군청), 펜싱의 박경두(34·해남군청)도 최상의 경기력으로 메달에 도전한다. 이 밖에 여자유도 -52kg급에 출전하는 박다솔(22·순천시청), 배드민턴 단체전에 전주이(23·화순군청), 카누 C1-1000의 최지성(21)과 카누 용선 조민지(21·이상 전남도청) 등도 메달 사냥에 나선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15일 오후 인도네시아 자와바랏주 반둥의 시 잘락 하루팻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축구 조별리그 E조 1차전 한국과 바레인의 경기. 황의조가 첫번째 골을 터트린 뒤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남자축구, 오늘 말레이에 '골 폭풍'

바레인전 황의조 3골... 6-0 대승 2차전 손흥민 뽀퐁기 차원 출전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조별리그 1차전부터 6골을 몰아친 김학범호가 조기 16강 진출 확정을 향해 또다시 '회근한 무력시위'를 준비한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U-23 축구대표팀은 오는 17일 오후 9시 인도네시아 자와바랏주 반둥의 시 잘락 하루팻 스타디움에서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조별리그 2차전을 펼친다. 15일 바레인을 상대로 6-0 대승을 따낸 한국(승점 3·골득실+6)은 같은 날 키르기스스탄을 3-1로 물리친 말레이시아(승점 3·골득실+2)와 나란히 1승을 거뒀지만 골득실에서 훨씬 앞서 E조 선두로 나섰다.

이번 대회에는 25개 팀이 출전해 A조에 5팀이 배정됐고, 나머지 B-F조는 4팀으로 구성됐다. 각조 1-2위를 차지한 12개 팀과 각조 3위 가운데 성적이 좋은 상위 4개 팀이 16강에 오른다. 바레인, 말레이시아, 키르기스스탄과 함께 E조에 포함된 한국은 1차전부터 대승을 거두면서 E조 최강 전력을 과시했다. 말레이시아전에서 한국이 승리하면 2승으로 사실상 16강 진출권을 확보한다. 김학범 감독은 바레인과 1차전에 '유럽과 공격수 트리오' 손흥민(토트넘)-이승우(엘라스 베로나)-황희찬(잘츠부르크)을 교체멤버로 돌리고 나상호(광주)-황의조(잠바 오사카) 조합을 투톱 스트라이커로 먼저 내세운 3-4-1-2 전술을 가동했다. 한국은 황의조가 전반에 3골로 헤트트리를 작성하고 김진야(인천)와 나상호가 득점에 가담하며 전반에만 5골을 넣었고, 후반에 투입된 황희찬이 경기

막판 프리킥으로 마무리 골을 넣으면서 6-0 대승을 완성했다. 김 감독은 말레이시아와 2차전에 대폭의 선수 변화를 예고했다. 무엇보다 2차전까지 휴식시간이 하루밖에 없어 바레인전에 나섰던 선수 가운데 운동량이 많았던 선수들은 벤치에서 말레이시아전을 준비할 전망이다. 1차전에서 선발로 출전해 후반 13분 교체된 황의조는 공격적인 무게감을 고려해 또다시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황의조-황희찬 '투톱'도 실험해볼 수 있다. 중앙 미드필더도 1차전에서 운동량이 많았던 이승모(광주)나 장우호(전북) 대신 김정민(리페링)이 투입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1차전에서 휴식한 손흥민이 후반에 잔디 적응과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교체로 그라운드를 밟을 수도 있다. /연합뉴스

## '배구 여제' 김연경 2연패 꿈

여자배구 19일 인도전 ... 23일 중국 주팅과 맞대결

한국 남녀 배구대표팀이 담금질을 마치고 격전지로 향했다. 15일까지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맘을 풀린 대표팀은 16일 오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착했다. 여자 대표팀은 19일 인도, 남자 대표팀은 20일 대만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첫 경기를 치른다. 한국 여자배구는 김연경(30·터키 엑사시바시)의 합류로 아시안게임 2연패의 꿈을 키웠다. 하지만 중국 대표팀 엔트리를 확인한 뒤, 긴장감에 휩싸였다. '배구 여제' 김연경의 라이벌로 성장한 주팅(24·터키 바키프방크)도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합류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1.5군을 내보낸 중국은 최정예로 이번 대회에 나선다.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 중국은 여전히 국제 배구연맹(FIVB) 랭킹 1위를 지키고 있다. 한국은 FIVB 랭킹 10위다. '승부사' 김연경은 오히려 더 욕망을 키운다. 김연경은 "중국, 일본이 최정예 멤버로 아시안게임에 나선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그동안 진다고 생각하고 시작한 경기는 없다"고 말했다.



김연경

김연경과 주팅의 맞대결은 이번 아시안게임 여자배구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B조에 함께 속한 한국과 중국은 23일 첫 대결을 펼친다. 사실상 조 1위 결정전이다. 두 팀이 9월 1일 열리는 결승전에서 맞붙을 가능성도 크다. 중국은 세트 덩샤, 레프트 장창닝, 류사오통, 라이트 궁상위, 센터 위안신웨이, 엔디, 리베로 린리 등 리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아시안게임 대표팀으로 선발했다. 여기에 2000년생으로 '제2의 주팅'으로 주목하는 리잉딩도 뽑았다. 객관적인 전력상 이번 대회 우승 후보 1순위다. 한국도 김희진(IBK기업은행)이 부상으로 빠졌지만 양효진(현대건설), 박정아(한국도로공사), 이재영(흥국생명) 등 '황금 세대'를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뽑았다. 박은진, 정호영, 이주아 등 고교생 3명도 선발했다.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뒤, 2010년 광저우와 2014년 인천에서 연속해서 3위에 그친 아쉬움을 남자 대표팀은 12년 만에 정상에 되찾기 위해서 도전한다. 센터 신영석(현대캐

피탈)이 부상으로 낙마했지만 문성민, 전광민(이상 현대캐피탈), 한선수(대한항공) 등 V리그 최고 선수들로 팀을 꾸렸다. 중국, 일본이 2진으로 대표팀을 꾸렸지만, 아시아 최강 이란이 정예 멤버로 아시안게임에 나섰다. /연합뉴스